

우주인의 지구와 달과 인간에 관한 에세이

“세상의 정치지도자들이 20만 킬로미터 밖에서 이 행성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의 관점도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국경은 보이지 않고 시끄러운 논쟁도 순식간에 잦아들 것이다. 이 작은 공은 돌고 돌면서 경계를 지우고 하나의 모습이 될 것이다. 차별을 중지하라고, 평등하게 대하라고 외쳐낼 것이다. 지구는 보이는 모습 그대로여야 한다. 청색과 흰색이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아니다. 부유층과 빈곤층도 아니다. 청색과 흰색은 서로 질투하거나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본문 중에서)



마이클 콜린스 지음·조연화 옮김



공학적 지식 외에도 무엇보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성찰할 소중한 기회를 선사한다”고 평했다.

“한 우주비행사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달에 가까이 가기까지 그가 겪어온 극적인 순간들의 기록이다. 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공군 테스트파일럿으로 복무하던 저자는 1963년 NASA 우주인으로 선발돼 1969년까지 만 6년 동안 우주비행사 생활을 한다. 그는 오랜 우주비행 훈련을 받고 제미니 10호와 아폴로 11호로 두 차례 우주비행을 성공적으로 치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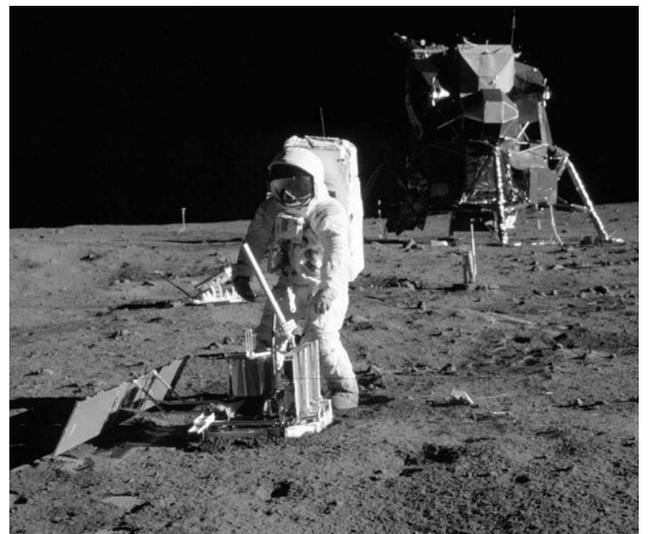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은 지난했다. 에리조나 사막 아영부터 지질학 탐사, 불시착에 대비한 생존훈련은 기본이었다. 무중력을 재현한 초음속 비행기 안

에서 구르고 토하기를 반복했으며, 원심회전기 체험과 제트기 추락 직전의 탈출 경험은 극도의 긴장감을 주었다.

저자는 과학기술만으로는 달 탐사가 불가능했다고 단언한다. 과학, 공학, 의학 등의 활동이 집약돼 우주 탐사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책에는 다양한 실험을 일테면 발사체 점화 과정, 행성과 행성 간 거리 재기, 우주선의 램데부와 도킹, 우주 유영 기술, 컴퓨터와 인간의 협업 등 생생한 장면이 담겨 있다.

천문학에 대한 지식도 빼놓을 수 없는 흥미거리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일출과 일몰, 2시간의 달 궤도 비행과 달 착륙 절차 등은 마치 우주의 낯선 정거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광대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저자의 시선은 유머러스하다. 중간 중간의 관조적인 시선도 느껴지는데, 그것은 우주 속에 존재하는 작은 일인으로서의 겸손함 일 터다.

“외롭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고독은 불가피하다. 달 뒤로 넘어가는 순간 지구와 무선통신까지 끊기면서 외로움은 더 깊어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모습. 탑승자 중 1명인 마이클 콜린스는 달에서 지구를 돌아볼 때 떠오른 첫 단어는 “가날프다” 였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진다. 나는 혼자다. 진정 혼자다. 이 공간에서는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생명체와도 단절되어 있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아폴로 11호는 인간의 기본 성품인 호기심과 도전의 정표’라는 사실이다. 아울러 미래에도 인간

은 지구 너머의 세계에 대한 탐험을 계속 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탐험은 사람의 관심을 넓히고 사고방식을 바꾼다.”

【사월의책·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그날의 비밀 에리크 뷔야르 지음·이재룡 옮김



프랑스 최고 권위의 공쿠르상은 1903년부터 지금까지 수상작을 발표해 온 유서 깊은 문학상이다. 상금은 10유로에 지나지 않지만 수상작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2017년 공쿠르상 수상작인 ‘그날의 비밀’이 발견됐다. 저자인 에리크 뷔야르는 영화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한 바 있으며 ‘서쪽의 전투’, ‘대지의 슬픔’ 등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설 ‘그날의 비밀’은 30여 개국에서 번역 계약이 이뤄지고 프랑스에서만 42만 부가 판매될 만큼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소설은 2차 대전의 전운이 감도는 1930년대 유럽을 배경으로 모두 16개의 짙막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933년 2월 20일, 독일 국회 의장 궁전에서 있었던 비밀 회동에 대한 것이다. 히틀러와 괴링을 만나는 자리인 이곳에는 크루프, 오펜, 지멘스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한다.

다음에는 히틀러를 왕실의 집사장으로 착각한 헐리팩스, 히틀러와 슈슈니크의 만남, 정신병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수테르, 오스트리아로 행진하다 멈춰 버린 독일군 탱크,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한 장면 등이 이어진다.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히틀러나 괴링 같은 정치인의 뻔뻔함보다 크루프 같은 기업가들의 무덤덤이다. 정치인과 군인들이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해도 기업가들은 놀라지 않는다.

작가는 ‘현순간이라도 이 모든 것이 먼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말한다. 1930년대, 유럽, 2차대전은 먼 이야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열린책들·1만2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도르노-벤야민 편지 이순예 옮김



독일 현대 지식사 속에서 집단지성을 대표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 지식인들이 가운데서 아도르노와 벤야민은 특별한 지적인 관계였다. 두 천재 이론가는 세기의 파국을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지적인 우정을 나누었다.

아도르노와 벤야민 자신들의 사유세계와 일상에 대한 속살을 숨김없이 드러낸 121통의 편지가 책으로 묶여졌다. 두 저자가 쓴 ‘아도르노-벤야민 편지 1928-1940’은 지식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속살 등 당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벤야민(1892-1940)의 마지막 편지는 잘 알려져 있다. 히틀러의 유럽 지배 과정에서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려던 그는 스페인 국경 마을 포르부에서 자자결한다.

“막다른 상황에서 나는 끝내는 수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피레네 산맥의 한 작은 마을에서 내 삶은 끝나게 되겠지요. 부탁건대 내 친구 아도르노에게 내 생각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처했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1940년 9월 25일)

책은 구성상 제1부와 제2부는 처음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하는 때의 의례적인 느낌들이 강하다. 제3부에 접어들면서 친밀감이 형성된 두 사람은 서로간의 곤란한 처지를 솔직히 털어놓는다. 또한 이들은 프랑크푸르트 학파 내의 구성원이었던 에른스트 블로흐나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 베르톨트 브레히트 등에 대해서도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갈·3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당신의 뇌, 미래의 뇌 김대식 지음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등 모든 인간 행동의 중심에 있는 ‘뇌’는 사실상 우리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뇌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뇌과학자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뇌과학적 측면에서 뇌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풀어낸 책 ‘당신의 뇌, 미래의 뇌’를 펴냈다.

책은 크게 ‘시각과 인지’, ‘감정과 기억’, ‘뇌과학의 미래’ 3개 장에 걸쳐 뇌의 핵심적 특징을 살펴본다. 특히 뇌의 지각 능력과 인지, 판단 등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달리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무게를 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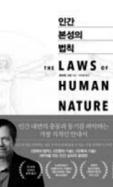
뇌가 객관적인 감각보다는 경험과 편견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비합리적 선택을 사후에 정당화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 등을 파헤치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뇌의 진실을 보여준다. 또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 ‘감정을 교류하는 능력’ 등 인간의 뇌 기능을 모방하며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 뇌과학이 나아가갈 미래도 분석한다.

책은 강의를 하듯 흥미진진한 문체로 읽기 편하게 쓰여졌으며, 뒷부분엔 다양한 관련 실험 자료와 사진·그림 등도 이해를 돕는다.

저자는 독일 막스-플랑크 뇌과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MIT 박사후과정, 미네소타 대학교 조교수, 보스턴 대학교 부교수를 거쳐 현재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감각식의 인간vs기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인간을 읽어내는 과학’ 등이 있다. 【해나무·1만68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인간 본성의 법칙 그린 지음·이지연 옮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결국에 가면 인간 본성과 그 원시적 뿌리를 반영하게 되어 있다. 인간의 본성은 장기만 위의 말처럼 우리를 가지고 논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500만여년에 걸친 진화 끝에 내면 깊숙이 뿌리 내린 ‘본성’에서 비롯되며, 이것이 곧 인간의 내면을 해독하는 유일한 열쇠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바로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등 책을 펴낸 로버트 그린이다.

로버트 그린은 우리 안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어두운 이면을 탐구한 책 ‘인간 본성의 법칙’을 펴냈다.

책은 인간 본성을 ‘비이성적 행동의 법칙’, ‘자기도취의 법칙’, ‘강박적 행동의 법칙’ 등 18개 법칙으로 분류해 비합리적인 인간 행동의 원인을 분석했다. 각 법칙은 자기도취적 성향을 이용해 막대한 영향력을 거머쥔 스탈린, 강박에 의해 ‘실패의 패턴’에 빠진 투자가 하워드 휴즈 등 다양한 사례를 해석해 인간 본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짚어낸다.

저자는 인간 본성을 정확히 파악하면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이한 옷, 도발적인 몸짓 등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선을 그으면서도, 그 선을 넘는 일을 동경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코코 샤넬, 마이클 잭슨 등이 그 예다. 이에 따라 ‘나를 지배하는 감정 극복하기’, ‘상대를 긍정해서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조언을 제시한다.

이밖에도 감정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 자제력을 키우는 법, 통찰력을 주는 공감능력을 개발하는 법 등에 대한 탐구를 담았다.

【위즈덤하우스·3만2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사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장 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촉복빌딩(도곡동 518-9)